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서는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멧대거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도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뻘**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가,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을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훑어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짙은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냐?”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뿜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 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밝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춰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뭘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 이호철, 「큰 산」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보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읽기 전 활동

작품 내에서 도시화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관 변화, 과도기적 상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 이익 중시, 자신 안위 보장에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술적 사고방식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보기〉만 읽어서는 확실하게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작품에 제시될지 집중하면서 읽어봅시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어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서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멧대거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땀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주인공과 아내는 ‘고무신짝’에 관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서술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파악해 봅시다. 우선 주인공 가족은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고무신짝’을 대문 앞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 일이 미심쩍어 그날 밤에 ‘고무신짝’을 들고 아무 집을 골라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게 됩니다. 액땀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주인공 가족에게 있어 ‘고무신짝’은 불길한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도시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미신과 같은 주술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아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집에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습니다. 또 이는 액땀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술적 사고방식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 사건 이해하기

서술된 사건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건이 있죠. 아침에 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고무신짝’과 관련된 일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니 ‘고무신짝’과 관련된 사건이라고만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아,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갑복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냐?”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스로를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뿜 뚫렸다 싶으면 스스로를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 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그렇게 ‘고무신짝’을 처리한지 열흘쯤 지났습니다. 밖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주인공과 아내의 웃음을 짓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보기>에 제시된 합리적 사고방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흘전에 비해 편안해 보이는 두 인물의 모습입니다. 주인공은 큰 산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늘은 어느새 활짝 개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밟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춰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좁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혈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이호철, 「큰 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그렇게 눈을 즐기며 문 쪽으로 간 아내는 분명 열흘쯤 전에 아무 집 담장으로 던져 버린 ‘고무신짝’이 다시 집 앞으로 온 것을 발견합니다.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분명 어딘가에 무언가를 버렸는데 그것이 집 앞에 다시 등장한다면 엄청나게 소름끼치겠죠? 주인공과 아내가 바로 이런 심리일 것입니다. 분명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는데 집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떨고, 공포에 빠지게 되는 두 인물입니다.

③ 사건 연결하기

열흘전에 ‘고무신짝’을 아무 집 담장 너머에 던져 버렸고, 그것이 다시 집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공포에 질리게 되는 사건 구조입니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 구조이지만 작품 이해에 중요한 구조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작품 이해하기

우선 이 부분에서 말할 내용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문에 제시되어 있고, 의문을 가질 학생도 계실 것이기에 심화적 독해 태도로 제시합니다.

주인공은 ‘큰 산’이 빠져 있다 생각하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지문만을 읽으면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문 속 중요 소재인 ‘고무신짝’은 인물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을 주고, 미신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여기에 대비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작품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무신짝’과 관련된 사건이 ‘큰 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인공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즉, ‘큰 산’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러한 사실을 잠깐 생각했지만,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큰 산’이 빠져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주인공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부분이기에,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작품 총평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무신과 관련된 사건과 그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에 주목하셨으면 독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작중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주인공네 집입니다. 고무신짝에 관한 사건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위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작중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기에 사건에 개입된 주인공의 관점으로 작품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작품 시작 부분에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그날 밤에 아내가 아무 집 담장에 고무신짝을 던져 버린 모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포함한 사건의 요약적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2.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주인공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겨울 아침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문 밖에서 고무신짝을 발견한 후 '나'와 '아내'는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해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무신짝에 관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눈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아내'는 눈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알이 되살리려 애쓴다.

→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 대해 잠깐 떠올리지만, 머리를 흔들며 지워 버립니다.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⑤

— <보 기> —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① '고무신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고무신짝을 아무 집 담장에 버려 버린 것이 '액땀'을 하기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신과 같은 주술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아내'는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습니다. 이는 주술적 사고방식과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아내'는 집앞에 다시 나타난 고무신짝을 보고 '완전히 떨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나'는 자신이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어하는 합리적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짝'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술적 사고방식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혼재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 '나'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나의 이런 말을 듣고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합니다. 내용 자체는 옳으나, 이 내용이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의 면모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나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응대하는 것이지,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가치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